

담당부서 : 기획조정실
담당자 : 진상훈 심의관
공보관실 : ☎ 3480-1451



2012. 10. 11. ~ 10. 12.

「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」 개최

- 대법원에서는 재외 한인 법조인을 포함하여 국·내외 저명한 법률가, 교수, 언론인 등을 초청하여 2012. 10. 11.[목]부터 10. 12.[금]까지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‘소통과 참여’를 주제로 「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」를 개최함
- 이번 심포지엄에는 해럴드 홍주 고 박사, 존 Z 리 미국 연방법원 판사, 장뤼크 므와냐르 프랑스 파기원 판사 등 해외 저명 법조인이 참가하여 기조연설,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임
-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(1) 대한민국 법원과 외국 법원의 지역사회와의 소통 프로그램 현황 및 그 과제, (2) 배심제·참심제를 포함하여 재판절차에 대한 미국·프랑스·중국·일본·브라질 등 각국의 다양한 국민참여제도 현황, (3) 대중매체·소셜미디어 등 미디어와 사법 간의 관계 등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임

1. 취지

-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‘국민은 법원 속으로, 법원은 국민 속으로’라는 모토 아래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옴
- 대법원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국내·외의 다양한 인사를 초청하여 ‘소통과 참여’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, 그동안 사법부가 추진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및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재점검하고,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봄

2. 주요 해외 참가자

- 해럴드 고(고홍주) 미국 국무부 차관보
 - － 인권법 전문가, 前 미국 예일대 법대 학장
 - － 現 국무부 법률고문(차관보)
- 존 Z 리(이지훈) 미국 연방법원 판사
 - － 2012. 7. 15.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북부 연방법원 판사 취임
 - － 故 허버트 최(최영조) 판사, 루시 고(고혜란) 판사에 이어 3번째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됨
- 이규순 브라질 상파울루 연방법원 판사(女)
 - － 브라질 최초 한인 연방법원 판사
- 오일환 중국 정법대 교수
 - － 중한법률연구회 회장 겸 한중법학회 이사
- 장 뤼끄 브와냐르 프랑스 파기원 판사
 - － 파기원(우리나라 대법원과 동일) 형사부 중죄사건 전담 판사
- 리처드 프윈 미국 LA 지방법원(주 법원) 판사
 - － 미국 법원 소통 프로그램 전문가
- 미우라 토오루 일본 동경지방법재판소 부장판사

- 동경지방법재판소 형사 21부 총괄 부장판사
- 메리 챔벨 맥쿤, 미국 주법원센터(NCSC) 회장(女)
- 2004. 8. 4.부터 NCSC 회장